



“장애와 불행은 무관… 나눔 실천이 행복 첫 걸음”

‘국세청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국세청 이종학 팀장

“누군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보다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공정세정 분야 성과 유풍으로 2011년 상반기 국세청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돼 지난 30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종학(44) 조사관리팀장. 그는 지난해 국세청 제안 대공모전에서 ‘기부금 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한 기부금 하위 공제 방지’를 제안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국세청 내 연구 모임인 동암회를 이끌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세무 고충을 해결한 능력을 인정받아 중앙인사위원회 주

관 우수 연구 모임 국세청 대표로 2차례나 참가하기도 했다.

이 팀장은 업무수행만큼이나 남을 돋보는데도 열성인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록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못쓰는 지체장애 2급이지만, 공직에 발을 내디딘 이후 끊임없이 주변을 보살펴왔다.

지난 1991년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8급 세무 공무원으로 출발한 이 팀장은 광주세무서 시절에 금납로 거주 화교들을 위해 밭벗고 뛰었다.

이 팀장은 “금납로 쪽에 화교분들이 많은데 세금과 관련된 분야에서

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잘 모르고 있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래서 화교들의 세무상담이나 한국 생활의 고충 등 여러 가지를 들어주며 화교들의 이국 생활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 일로 중화민국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표장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일을 시작했다.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에 부임하면서부터 ‘옹달샘’이라는 봉사단을 조직해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 이 팀장을 주축으로 20여 명의 봉사단원은 매주 아동보호시설인 광산구 나자렛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생활 속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해보자는 의도로 조

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해외기부단체인 굿네이버스에 정기적으로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2살 때부터 소아마비로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 저를 데리고 학교에 다니신 아버지, 힘든 일이라면 나를 위해 선뜻 나서준 친구들,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준 선생님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의 절반도 돌려드리지 못한 것이지요.” 이 팀장은 “뜻을 품은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가 좌우명이다”며 “장애와 행복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항상 희망을 쫓아 생활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

전남대병원·치과병원 의료봉사



전남대
병원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센터장
박종준 교수)
와 전
남대 치과
병원
봉준씨
오원만씨

병원(원장 오원만)은 2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무등경기장 야구장 앞에서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야구경기를 관람하러 온 관중들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의 비만·당뇨·고혈압 상태 등을 측정해 알려주고 책자를 함께 제공한다. 전남대치과병원은 의료진들이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해 충진 등 구강진료 기본검진을 실시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박선이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30일 박선이(50) 조선대 거진 미디어 사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박 위원장은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나와 조선일보 문화부장과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영상물등급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문광부는 이날 박 위원장 등 9명을 제5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병무청 첫 여성징병관 최은순씨



병무청은 지난 30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관에 최은순(55) 서기관을 발탁해 1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1974년 9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36년 만에 병무청 최초 여성 징병관이라는 영예를 얻었다. 병무청 인사담당, 규제개혁부담당, 고객지원담당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사랑방 의미 퇴색될까 대부업체 광고 제의도 거절”

6년째 ‘無人가게’ 장성 신촌마을 박종렬 이장

“지금처럼 어르신들이 집처럼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의 의미가 되색할까봐 대부업체의 광고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신촌마을에서 6년째 무인양식가게를 총괄 운영하는 이장 박종렬(52)씨. 박 씨는 요즘 대부업체 광고 제의를 거부하느라 몸살이다. 무인양식가게를 광고소재로 활용하면 돈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대부업체들이 거액을 제시하며 전화공세를 하고 있어서다.

박 이장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소박한 마을의 사랑방을 대부업체

광고에 이용한다는 것이 말도 안 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에 무인가게를 개점한 것은 지난 2005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에 하나님밖에 없던 가게가 없어지면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마을회관 옆 두 평 낮지 한 공간에 처음으로 무인가게를 열었다.

이후 지난 2007년에는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 후에 오히려 생필품 가짓수를 더 늘려 진열했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변치 않은 ‘믿음’ 때문인지 단 한



전의 도난사고
도 일어나지 않아.

지난해 12월에는 출향 인사들과 장성군청,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7000만 원을 모아 무인가게와 마을회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박 씨는 “한 달 200만 원가량 매출을 올리는데, 사설상 순이익은 20만 원에 불과하다”며 “전기료 등 운영비로 총당하면 남는 것이 없지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충북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농협 전남본부 ‘7월의 새농민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지난 30일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새농민상’ 7월 수상자로 안진수·김성애(함평군 나사면 나사리)씨, 이정복·백옥자(진도군 지산면 오류리)씨 부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다.

함평 나사농장을 운영하는 안진수(55)씨 부부는 수경재배 시스템을 도입한 시설하우스 240평에서 거베라와 알스트로메리아를 재배해 연간 1억원 이상의 고수득을 올리고 있다.



안진수·김성애씨 부부

진도 대전농장을 경영하는 이정복(60)씨 부부는 축산분뇨에 해초류·목초액을 첨가한 액비를 만들어 3년간 숙성한 뒤 시비하는 자연친화적 토양관리 농법으로 대파(4ha), 배추(1ha), 배(4ha) 무농약 인증을 받아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백정옥기자 jwpark@

행복문화사업단

대중교통사랑음악회 오늘 운천저수지서

사회적기업 행복문화사업단(공동대표 나사군)은 에너지절약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사랑음반’을 발매하고 1일 저녁 7시30분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야외무대에서 대중교통사랑음악회를 개최한다.

행복문화사업단이 주최하고 메트로엔젤과 행복발전소가 주최하는 이날 음악회는 장희의 사회로 ‘달려라 시내버스’이다. ‘지하철의 사랑’ 김대선, ‘헤이 친구야’ 김유성, ‘사랑하는 어머니’ 이애자, ‘딱 걸렸어’ 은지 등이 출연한다. 2부에서는 저출산극복을 위한 노래 ‘사랑의 열매 셋째’를 부른 김태희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사업단은 이번 음반을 전국 방송국에 배포하고 지하철 역사와 버스 등에서 대중교통사랑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

국립공원의 야생화



열매는 식용, 잎은 모기퇴치, 목재는 바둑판

<51> 비자나무꽃

비자나무는 25m 정도로 자라는 주목과의 큰키나무다.

2줄로 늘어선 바늘잎이 한자 아닐 비(非)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었으나, 후에 상자나 가구를 만들기 좋다는 뜻으로 상자방(ㄷ)자와 나무 목(木)자를 붙여 비자나무(비)가 됐다.

비자나무는 쓰임이 많은 나무로 열매는 구충제를 대신하거나, 기름을 써서 식용으로 이용하고, 가지나 잎은 태워 모기장을 쳄고, 목재는 바둑판의 재료로 사용되는 등 쓰임이 많다.

내장산국립공원의 백양사 비자나무는 비자나무의 자생지로 써 북쪽 한계선이라는 지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 ‘천연기념물 153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 자문위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진수)는 지난 28일 광주시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2011년 상반기 광주전남지역본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호반건설 장애인복지시설에 차량 기증



(주)호반건설이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2011 희망CAR 캠페인’에 따라 지난 28일 광주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5곳에 차량을 전달했다.

〈동구청 제공〉

인사

- ◆광주지방법원
- ◆4급 전보 ▲남구선관위 사무국장 정영모
- ◆5급 전보 ▲시선관위 지도담당관 김병삼
- ▲시선관위 조사담당관 업기용
- ◆전북지방경찰청
- ◇총경 ▲지방청 홍보담당관 황대규 ▲경무과장 신일섭 ▲정보통신담당관 백용기 ▲ 수사과장 이상주 ▲ 경비교통과

장 최원석 ▲ 보안과장 조기준 ▲전주 덕진경찰서장 양태규 ▲정읍서장 백순상 ▲완주서장 강황수 ▲고창서장 최종문 ▲부안서장 정병원 ▲진안서장 안기남 ▲무주서장 주강식 ▲경무과 대기 유선분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장 신승우 ▲통계대행

과장 윤석은 ▲경제통계기획과장 최성우

◆광주 동구

◇5급 승진 ▲지원1동장 직무대리 송택기

◇8급 승진 ▲도시재생과 최상일
◇6급 전보 ▲공보관 이광일 ▲기획감사실 최주동 ▲기획감사실 안대순 ▲총무과 한이석 ▲주민생활과 최일남 ▲기후변화대응과 조규범 ▲도시재생과 박병택 ▲교통과 박창식 ▲계립2동 김미라

◇7급 전보 ▲환경관리사업소 국윤석·신동희 ▲총장동 최경동

◆여수시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김의곤 ▲도

십계발사업단장 김태욱

◇5급 승진 ▲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정체윤

▲상황대책과장 ▲김재일 ▲동문동장 ▲전

동독 ▲중앙동장 ”송하영 ▲광림동장 ”

추용연 ▲미평동장 ” 김정희 ▲화양면장 ”

” 최종일 ▲특산품육성과장 ” 정대봉 ▲

▲여성동장 ” 김희근

◆광양시

◇4급 승진 ▲보건행정과 고재구

◇5급 승진 ▲회계과 박현수 ▲총무과 장진호

◇6급 승진 ▲옥룡면 빅종태 ▲총무과 김종호

◇7급 승진 ▲총무과 박정규 ▲상수도사업

업소 김남규 ▲세정과 김혜진 ▲상수도사업

소 김현영 ▲하수과 강정원

◆동강대학

▲행정지원처장 이상일 ▲교무입학지원

과장 김호정 ▲학생복지지원과장 김안석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동창·동문회